

조셉 양  
(Joseph Yang),  
중국



# “성적지향성으로 고군분투하는 동성애 크리스찬을 지지하는 하나님선교를 위한 나의 소명”

나는 장로교 전통을 따르는 중국 푸지안(Fujian)성 사멘(Xiamen)의 전통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1998년 Xiamen Xunsiiding 교회는 가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와 성경공부에 참여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 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느 날 나는 잘못해서 아버지 팔에서 떨어졌고 기절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부모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만약 제가 살아남으면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아버지는 2002년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까지 이 사실을 내게 비밀로 해 왔습니다.

실업계 고교를 졸업한 뒤 나는 중국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삶은 편했지만 열정이 부족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 신학센터(Theological Centre for Asia)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도 난 여전히 벽장안에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커밍아웃 한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 용이오 분 린(Ngeo Boon Lin) 목사님이 큰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점차로, 내 자신과 내 섹슈얼리티를 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싱가폴과 홍콩에서 7년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중국 동성애자 기독교동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연구를 시작한 것은 총 차이 신학대학원(Divinity School of Chung Chi)에서였습니다. 졸업 후에는 무급 전임목회자로 시작하여 8년동안 중국에서 성소수자 그룹을 섬겼습니다.

2010년에 첫 QQ(중국에서 인기있는 라이브 채팅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인터넷 라이브 채팅 그룹을 시작했습니다(현재 CTK 공개 채팅 그룹으로 알려짐). 2011년 말까지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합류했습니다. 성적지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크리스찬을 위해 사역을 계속하고 확장하라는 소명을 느꼈습니다.

2012년은 내게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시아먼(Xiamen)에 있는 몇 명의 성소수 크리스찬과 더불어, 중국의 게이 목사님이 이끄는 최초의 CTK 펠로우십 설립을 도왔습니다. 그 시간은 다른 성소수 크리스찬들과 함께 일어나, 서로를 격려하고 긍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 역시 중국의 LGBT 크리스찬에게 한정된 온라인 포럼을 통해 온라인 기도네트워크, 토론과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인식년 후 본토 중국에서 동성애 크리스찬을 섬기도록 더 깊은 차원의 훈련을 받을 수 있게 준비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 스스로 다음의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복음적 관점에서 LGBT 크리스찬 사역의 주제를 탐구하고 싶습니다. 둘째, 중국 LGBT 크리스찬들에게 보다 효과적 목표를 목적으로, 교회개척과 관계적 사역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어 신학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싶고 중국본토 신학교육의 미래를 위한 영적지평을 넓히고 싶습니다.

나의 섹슈얼리티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 상상을 넘어, 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성적 지향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동성애 크리스찬들을 지원하는 하나님 사명에 대한 내 소명을 계속 상상할 것입니다.